

원저

## 《黃帝內經·靈樞》를 통한 血脈小考

강미숙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 Review on *Hyolmaek*(血脈) through *Hwangjenaegyeong Youngchu*

Kang Mi-suk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Objects** :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cept of *Hyolmaek* in *Hwangjenaegyeong Youngchu*.

**Methods** : We researched the words “*Hyolmaek*” through *Hwangjenaegyeong Youngchu*. According to meanings of *Hyolmaek* in sentence, we classified *Hyolmaek*.

**Results** : In *Hwangjenaegyeong Youngchu*, the meanings of *Hyolmaek*(血脈)are follows.

1. There were many meanings of *Hyolmaek* In *Hwangjenaegyeong Youngchu*.
2. *Hyolmaek* means blood vessels, *Lakmaek*, blood circulation, extravasated blood, and etc. and it represents blood vessel systems.

**Key words** : *Hyolmaek*(血脈) *Hwangjenaegyeong Youngchu* (黃帝內經 靈樞), blood vessel systems(血管系), extravasated blood (瘀血), *Lakmaek*(絡脈)

## I. 서론

혈맥은 “血脈 卽經脈, 簡稱 脈, 氣血運行的 通路”<sup>1,2)</sup>, “血脈是 一介涵蓋 氣血經絡的 整體系統, 是運動 氣血的 通道”<sup>3)</sup>라 하여 經脈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黃帝內經·靈樞·血絡論》에서는 血脈이란 盛해

서 딱딱하게 가로누워 있고 일정한 장소가 없으며 작은 것은 가느다란 鍼과 같고 큰 것은 젓가락같이 보이니 피를 빼내어야 萬全을 기할 수 있다<sup>4)</sup>라고 하여 絡脈病의 진단과 치료에서 血脈과 血絡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sup>5)</sup> 피의 통로인 血脈(血管)과 氣의 통로인 絡脈과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는데<sup>5)</sup> 이렇듯 血脈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이 연구는 경원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접수 : 2010. 11. 27. · 수정 : 2010. 11. 30. · 채택 : 2010. 12. 1.

· 교신저자 : 강미숙,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00-1 경원길부속병원 한방병원 침구과

Tel. 070-7120-5014 E-mail : cyberdoc@kyungwon.ac.kr

血脈은 經絡의 기본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으나, 나 등<sup>6)</sup>은 經脈과 血脈을 모두 脈이라 불렀으며 經脈에는 氣가 흐르고, 血脈에는 血이 흐른다고 하였다. 국 등<sup>3)</sup>은 血脈의 개념을 血管, 血絡, 惡血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등<sup>7)</sup>은 血脈이 지금의 動靜脈과 血 그 자체를 포괄하며, 광범위하게는 經絡의 의미와 인체 영양분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혈액이 하나의 정해진 개념이 아닌 血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黃帝內經》이 血脈診法에 대해서 계통적 기재<sup>8)</sup>를 하고 있으며, 특히 靈樞經에는 침구이론의 기본 古書이자 血脈에 관한 언급이 많으므로 靈樞經의 내용을 통하여 血脈의 쓰임과 개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靈樞經의 원문은 《補注主解 黃帝內經 靈樞》<sup>4)</sup>(이하 靈樞經)를 참고로 하였다.

## II. 본 론

### 1. 生理的 血脈

#### 1) 血管, 氣血循環 등의 血脈系로서의 血脈

〈五味〉: 血脈者中焦之道也 故鹹入而走血矣  
 〈五邪〉: 取血脈以散惡血, 取耳間青脈, 以去其擊  
 〈九鍼十二源〉: 血脈者, 在脛橫居, 視之獨澄, 切之獨堅

#### 2) 氣血循行을 대표하는 血脈

〈刺節眞邪〉: 善用鍼者, 亦不能取四厥 血脈凝結 堅搏不往來者, 亦未可即柔.  
 〈終始〉: 人迎與脈口俱盛三倍已上 命曰 陰陽俱溢 如是者 不開則血脈閉塞 其無所行 流淫于中 五臟內傷  
 〈百病始生〉: 歧伯曰 厥氣生足惋, 惋生脛寒, 脛寒則 血脈凝滯 血脈凝滯則寒氣上入於腸胃, 入於腸胃則臍脹, 臍脹則腸外之汁沫迫聚不得散, 日以成積  
 〈通天〉: 陰陽和平之人 其陰陽之氣和 血脈調  
 〈五變〉: 胸中畜積 血氣逆留 臍皮充肌 血脈不行 轉而爲熱 熱則消肌膚 故爲消瘡  
 〈平人節穀〉: 血脈和利 精神乃居 故神者 水穀之精氣也  
 〈癰疽〉: 夫血脈營衛 周流不休 上應星宿 下應經數 故爲之治鍼

〈九鍼〉: 三者人也 人之所以成生者血脈也  
 〈刺節眞邪〉: 治厥者 必先熨調和其經..火氣已通 血脈乃行然後視其病 脈渾澤者 刺而平之  
 〈刺節眞邪〉: 歧伯曰 大風在身 血脈偏虛 虛者不足 實者有餘 輕重不得 傾側宛伏  
 〈天年〉: 歧伯曰 五藏堅固 血脈和調 肌肉解利 皮膚緻密 營衛之行 不失其常 呼吸微徐 氣以度行

### 2. 病理的 血脈

祛惡血의 대상인 絡脈으로서의 血脈에 대한 언급이다.

〈小鍼解〉: 宛陳則除之者 去血脈也  
 〈官鍼〉: 四曰絡刺, 絡刺者, 刺小絡之血脈也  
 〈終始〉: 久病者 邪氣入深 刺此病者 深內而久留之 間日而復刺之 必先調其左右 去其血脈 刺道畢矣  
 〈憂恚無言〉: 歧伯曰 足之少陰 上繫於舌 絡於橫骨 終於會厭 兩寫其血脈 濁氣乃辟  
 〈五亂〉: 氣在于臂足 取之先去血脈 後取其陽明 少陽之榮輸  
 〈血絡論〉: 歧伯曰 血脈者 盛堅橫以赤 上下無常處 小者如鍼 大者如筋 則而寫之萬全也  
 〈九鍼十二源〉: 神在秋毫 屬意病者 審視血脈者 刺之無殆

### 3. 診斷的 血脈

疾病을 판단하는 근거로서의 血脈에 대한 언급이다.  
 〈邪客〉: 視其血脈 察其色 以知其寒熱痛痺  
 〈論疾〉: 診血脈者 多赤多熱 多青多痛 多黑爲久痺  
 〈決氣〉: 六氣者 有餘不足 氣之多少 腦髓之虛實 血脈之清濁 何以知之  
 〈論疾〉: 魚上白肉有青血脈者 胃中有寒

### 4. 所在部位와 傳變의 血脈

病의 所在와 邪氣 傳變과 관련된 血脈(臟腑-血脈-分肉)에 대한 언급이다.  
 〈四時氣〉: 故春取經 血脈分肉之間  
 〈周痺〉: 間不容空 願問此痛 在于血脈之中邪, 將在分肉之間乎  
 〈周痺〉: 歧伯答曰 周痺者 在於血脈之中 隨脈以上 隨脈以下 不能左右 各當其所

- 〈脹論〉：黃帝曰 夫氣之令人脹也 在於血脈之中邪藏府之內乎
- 〈病傳〉：黃帝曰 何謂 夜暝 岐伯曰 瘖乎其無聲 漠乎其無形 折毛發理正氣橫傾 淫邪泮衍 血脈傳溜 大氣入藏 腹痛下淫 可以致死 不可以致生
- 〈賊風〉：此皆嘗有所傷于濕氣 藏于血脈之中 分肉之間 久留而不去

### 5. 기타

血과 脈의 독립적 개념의 血脈에 대한 언급이다.

〈本神〉：血脈營氣精神 此五藏之所藏也

〈決氣〉：余聞人有精氣津液血脈

## Ⅲ. 고찰

血脈이란 “血絡 橫居在俞橫居 神之證 切之獨見”라 하여 穴자리에 가로누워 눈으로 보면 홀로 두드러져 보이고 만지면 홀로 건겉이 된 부위이다<sup>5)</sup>. 血脈은 경락의 체계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개념 역시 한 가지로 정해진 것이 없고 여러 가지의 뜻으로 혼용되고 있다. 血脈과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는 血絡과 絡脈이 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血脈과 絡脈을 살펴보면 《한의학용어대사전》<sup>9)</sup>에서는 “絡脈을 經脈에서 갈라져 전신에 網狀으로 퍼져 있는 크고 작은 분지 또는 몸에서 얇은 표층의 靜脈血管을 말하며, 血絡은 즉 絡脈으로 신체의 深層과 表層에 분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층에 분포되어 있는 絡脈을 말하며, 정맥과 모세혈관을 일컬으며 임상에서 진단이나 刺血治療에 자주 사용된다”라고 하였다. 《경혈학》<sup>10)</sup>에서는 絡脈은 經脈이나 絡脈에서 분출된 橫斜行하는 분지이며, 血絡은 피부표층에서 분포된 浮絡가운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細少血管으로 보았고, 絡脈에 병리적 현상으로 血氣가 울체되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血絡<sup>5)</sup>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유사성 때문에 絡脈病의 진단과 치료에서는 血脈과 血絡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脈과 絡이 다른 만큼 血脈과 血絡, 絡脈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자는 한의학 고전 중 침구이론의 근간이 되는 《黃帝內經》 靈樞經을 통해서 血

脈의 쓰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血脈이 經脈과 血管의 기능을 수행하는 氣血의 運行통로서 현재의 動·靜脈과 혈액의 개념을 포괄한 광범위한 생리·병리·진단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기초하여<sup>11)</sup> 혈액의 의미를 생리적·병리적·진단적 의미로 靈樞經 原文을 분류하고 그 외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부분은 새로운 분류로 추가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sup>7)</sup> 등은 《黃帝內經》을 통한 血脈의 고찰에서 혈액이 생리적으로는 心의 상태를 반영하고, 병리적으로는 凝滯 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며, 臟腑經絡과 연계를 하는 진단이론으로서의 血脈, 그리고 현재의 靜脈을 의미하는 治療 대상으로서의 혈액으로 생리, 병리 진단, 치료에 이르기까지 쓰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와 함께 臟腑-血脈-分肉으로 연계되는 血脈의 분류와 상기 분류의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의 두 항목을 추가하고, 靈樞經 原文을 각각 그 항목에 배속시켜 분류하였다.

국<sup>3)</sup> 등의 연구에서는 血脈의 의미를 血管, 血絡, 惡血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기능적으로는 血의 기능과 脈의 기능, 血脈의 기능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血管은 血之府로서 血脈을 말하며, 惡血은 刺絡療法の 대상이 되는 惡血, 瘀血을 말한다 고 하였다. 여기에서 血絡은 診絡脈의 의미와 刺絡의 대상이 되는 현재의 淺靜脈이나 毛細血管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後者는 惡血로 해석되는 血脈의 血絡적 의미와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血脈을 血絡으로 설명한 대목에서는 진단의 근거로서의 血脈과 刺絡의 대상이 되는 血脈의 의미를 모두 血絡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診血脈法의 血脈과 去血脈에서의 血脈을 같은 의미로 봐도 무관한 것인지 하는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의 血脈은 絡脈의 의미를 지니며 이는 生理的 絡脈, 즉 진단의 근거가 되는 絡脈과 瘀血·惡血을 의미하는 病理的 絡脈이 있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을 듯 하다. 이 연구가 본 연구와는 분류방법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진단의 근거인 血脈은 診斷의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刺絡療法の 대상인 去血脈은 病理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血脈이라는 단어는 靈樞經에 총 30次 나타나며, 그 문맥 중에서 쓰이는 의미에 따라 생리적·병리적·진단적, 邪氣 所在와 傳變과 관련된 血脈과 기타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血脈의 첫 번째 의미는 血液, 血管 및 血液을 포함

한 氣血循環을 나타내는 생리적 기능이다. <五味>에서 血脈者 中焦之道也라 하여 血脈은 血液이 운행하는 통로인 血管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 <癰疽>에서 夫血脈營衛 周流不休...라 하여 血脈은 營衛와 같이 周流해서 쉬지 않는 순환을 의미하며, <百病始生>에서는 岐伯曰...脛寒則血脈凝滯...이라 하여 血脈이 凝滯되면 병리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의 그 이전 단계인 氣血循環의 의미로 쓰였다.

두 번째, 병리적 의미의 血脈은 주로 絡脈과 같은 祛惡血의 대상이 되는 惡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小鍼解>에서 宛陳則除之者 去血脈也, <血絡論>의 岐伯曰 血脈者...則而寫之萬全也라 하여 除之, 寫之해야 할 대상을 나타낸다. <血絡論>의 岐伯曰 血脈者 盛堅橫以赤 上下無常處 小者如鍼 大者如筋 則而寫之萬全也에서는 絡脈診法에서 絡脈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으나 寫之萬全也라는 후반부의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惡血의 분류에 포함시켰다.

세 번째, 진단적 의미의 血脈은 血脈의 充實과 色을 보고 疾病의 寒熱虛實을 파악하는 絡脈診法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서 쓰였는데, 이는 <黃帝內經>에서 말한 血脈診法<sup>8)</sup>과 상통한다. <邪客>에서 視其血脈 察其色 以知其寒熱痛痺, <論疾>에서 診血脈者 多赤多熱 多青多痛 多黑爲久痺라 하여 血脈의 色을 관찰하여 寒熱痛痺을 알 수 있고, 血脈을 진찰할 때 그 색으로 熱, 痛, 痺를 알게 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네 번째, 血脈은 經氣 및 邪氣의 所在 및 傳變에 연관된 臟腑-血脈-肌肉 중의 한 부분을 의미한다. <四時氣>에 故春取經 血脈分肉之間, <脹論>에 黃帝曰 夫氣之令人脹也 在於血脈之中邪 藏府之內乎, <賊風>에 此皆嘗有所傷于濕氣 藏于血脈之中 分肉之間 久留而不去라 하여 血脈-肌肉, 血脈-臟腑로 대별되는 개념으로 병이 침입하고 傳變되고 치료할 수 있는 經脈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마지막의 기타 의미로는 血脈이 단독적으로 血과 脈의 의미로 각각 쓰이는 경우이다.

이상에서 <黃帝內經> 靈樞經에서의 血脈은 生理, 病理, 診斷, 邪氣所在와 傳變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後代로 갈수록 血脈의 의미가 靑帶, 靑筋<sup>7)</sup>인 絡脈의 의미로 국한되어, 오늘날에는 血과 관련된 絡脈의 일부로 대부분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血脈은 絡을 넘어서서 脈의 의미를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의 血과 관련된 經과 脈을 의미함을 살펴보았다.

총괄하면 血脈은 血과 관계된 經·絡·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血管과 氣血循環을 포함한 생리적 기능, 祛惡血의 대상인 병리적 產物, 經

脈診法의 기본근거로서의 진단적 개념 및 邪氣의 所在 및 傳變의 의미가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血脈이 血과 관련된 絡脈의 의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血脈 心主神之血脈이며 心之合<sup>12)</sup>이라 한 것과 연관해서 心과 관련된 血의 모든 기능과 經·絡·脈을 포함하는 血脈 機能系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 론

1. <黃帝內經·靈樞>에서 血脈은 생리적으로 血管과 氣血循環, 병리적으로 瘀血, 진단적 의미의 絡脈, 그리고 邪氣의 所在와 傳變과 관련된 經脈의 역할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 血脈은 心과 관련된 血의 모든 기능과 經·絡·脈을 포함하는 血脈 機能系라고 할 수 있다.

## V. 참고문헌

1. 高忻洙. 실용침구학사전. 江蘇科學技術出版社. 南京. 1999 : 199.
2. 채인식, 권현덕, 변원주 공역. 한방의학용어대사전. 계축문화사. 1983.
3. 국보조, 김효철. <黃帝內經> 血脈理論探討.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 24(4) : 217.
4. 김달호. 補注主解 黃帝內經 靈樞. 서울 : 의성당. 2002.
5. 이학인, 김경식, 김연섭. 臨床經絡 腧穴學. 법인문화사. 서울 : 법인문화사. 2000 : 75-9.
6. 나경찬, 박현국. 黃帝內經 ; 脈 ; 診脈法. 동국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3 ; 3 : 73-105.
7. 이종영, 조병준, 권기록, 강대인. 血脈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약침학회지. 2005 ; 8(3) : 11-9.
8. 오국정. 內經診斷學. 大成出版社 影印. 서울 ; 1999 : 149-50.
9. 편집실 편저. 한의학용어대사전. 서울 : 영림사. 2007 : 174-5, 1209.
10. 이상용. 경혈학. 서울 : 청흥. 2007 : 20, 57.
11. 전통의학연구소 韓醫學事典. 서울 : 정보사. 1978 : 83.
12. 謝觀 편저. 신편중국의학대사전. 서울 : 여강. 2001 : 2152.